

# 간호대학생의 강의평가에 대한 태도 및 인식연구 : A 대학을 중심으로

김은아, 우상준\*  
동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A Study of the Attitude and Perception on Course Evaluation of Nursing Students: Focused on A-University

Eun-A Kim, Sang-Jun Woo\*  
Professor, Dept of Nursing Science, Dongshi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강의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 및 인식을 분석하여 강의평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J도에 있는 A 대학의 간호대학생 428명을 대상으로 설문 후 SPSS 23.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ANOVA, t-test 및 사후분석으로 Scheffé test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은 강의평가에 비교적 신중하고 올바른 응답태도로 참여함이 확인되었고, 강의평가 결과는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교수자는 강의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수업을 개선하는 과정을 학생들과 공유하고, 학생들이 강의평가 취지와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추후 임상실습과목 등 간호학과 특성을 반영한 강의평가 문항개발 및 평가시스템 수정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강의평가, 태도, 인식, 개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analyzed the overall attitude and perception of course evaluation of nursing students, and suggested improvement direction of course evaluation. The sample consist of 428 A-university students in J provinc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PSS 23.0 program using ANOVA, t-test, and Scheffé test.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nursing students participated in course evaluation with a careful and correct response attitude, and course evaluation result was reliable. The instructor should share the process of improving the class by reflecting the evaluation results so that the students can recognize the purpose and importance of course evaluation. In addition, it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items of a course evaluation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 of nursing such as clinical practice courses and to revise the evaluation system.

Key Words : Nursing students, Course Evaluation, Attitude, Perception, Improvement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의 경쟁력제고 필요성과 함께 수요자인 학생 중심

으로 운영되는 대학의 현실[1]에서 강의의 질 향상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 뿐 아니라 교수의 강의에 대한 열의가 중요하며, 특히 강의평가는 학생들의 여러 강의 피드백 중 강의의 질에

\*Corresponding Author : Sang-Jun Woo(woosj@dsu.ac.kr)

Received August 21, 2019

Accepted November 20, 2019

Revised October 17, 2019

Published November 28, 2019

대한 학생의 가치판단의 측면이라는 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음이 분명하다[2]. 이에 대부분 대학에서는 강의의 질적 향상과 강의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강의평가 결과의 등급화 및 업적평가에 이를 반영하고 우수교수 선발의 기준으로 활용하거나, 승진, 재임용 등의 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강의평가 점수가 현저하게 낮은 경우 행정적인 조취까지 취하는 경우도 있다[3,4].

강의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메타연구는[5], 교수자요인, 학생요인, 강좌 특성의 세 범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수자 요인으로는 교수의 직위, 연령, 강의 구성 및 활동 등이고, 학생 요인으로는 학생의 학년, 성별, 성적, 수업참여도, 전공 등이며, 기타 강좌의 특성인 이수구분, 강의규모, 강의방식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6-8]. 특히 간호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전공실습 과목이 많은 학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습과목만의 특성이 존재한다. 즉 전공 실습과목의 경우에는 과목교수와 임상지도자로 두 명의 교수자가 공존하는 특성이 있으며, 교내 환경과는 다른 각각의 실습지 자체의 경험 및 환경 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강의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교수자, 학생 및 강좌특성 등의 요인들이 실제 강의평가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평가문항의 개발 및 활용이 이어진다면 더욱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강의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평가도구의 타당성 문제로, 단과대별, 전공별, 수업 유형별 특색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강의평가의 도구의 문제를 지적한다[9-11]. 두 번째는 학생들이 강의평가에 대해 지니고 있는 태도 및 인식에서 비롯된 평가결과의 신뢰도 문제이다. 즉 학생들이 수행한 강의평가가 강의개선 피드백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부정적 인식과 더불어, 학점확인과 연동되는 강제적인 현행 평가시스템 안에서 다수의 과목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나타나는 무성의한 답변태도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신뢰성 측면의 문제를 지적한다[5,7,12,13]. 따라서 평가도구 및 결과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 문제는[14,15] 강의평가의 중요한 전제조건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강의평가에 대한 태도 및 인식파악을 통해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평가도구가 수업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타당도가 높은 도구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한편 강의평가에 대한 교수자 및 학생의 인식을 살펴 보면 교수자는 강의평가 결과에 많은 영향을 받고, 실제로 강의평가 결과를 강의의 질 향상을 위한 도구로써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교수자 뿐 아니라 학생 또한 강의평가는 필요한 제도이며 지속되어야 한다는 일치되는 견해들을 보이고 있다[3,16]. 다시 말해 대부분의 대학은 강의평가를 필수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여러 방법으로 반영하고 있고, 교수자들은 강의평가 결과에 피드백을 받아 강의개선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며, 학생들 또한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강의평가가 적절한지 학생들의 강의평가에 대한 태도 및 인식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영향과 맞물려 국내 대학의 간호학과들은 간호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간호교육 인증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간호교육 인증평가는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 있는 간호사양성과 간호교육의 발전을 목적으로[17] 2004년부터 전국 모든 대학의 간호학과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평가내용 중 강의개선 노력이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강의평가에 대한 교수의 태도[16] 및 전문대학 간호과 학생들이 인지하는 강의평가 기준 이외에[18]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의평가 관련 연구는 드문 편으로, 본 연구를 통해 간호교육 만족도 향상 방안제고와 더불어 전공특성을 반영한 강의평가 방안마련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강의평가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전반적인 태도 및 인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하여 교수자, 학생 및 강좌 특성들이 강의평가 결과에 실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과연 강의평가 결과가 강의개선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지 그 적절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간호대학생의 강의평가에 대한 응답성향, 응답건전성 및 만족도, 강의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조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추후 강의평가 시스템의 수정·보완 및 간호학과 특성을 반영한 강의평가 도구를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로 간호학과 교육학을 접목하고 이를 융합하여 조화롭게 연결한다면 효율적인 간호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강의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 및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간호대학생의 강의평가에 대한 응답성향, 응답건전성 및 만족도, 강의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강의평가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강의평가에 대한 응답성향을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강의평가 응답건전성과 만족도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답건전성과 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강의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강의평가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을 분석하여, 강의평가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 대상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독립표본 t검정 및 ANOVA검정에서 효과크기 .2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선정하였을 때 필요한 대상자 수는 최소 280명으로 산출되었다 [19,20]. 본 연구에서 대상자는 J도에 소재한 A대학 간호대학생 1~4학년 총 428명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를 임의표출하였다.

### 2.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도구는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강의평가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전반적인 태도 및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문항으로, 이를 위해 강의평가에 대한 응답성향, 응답건전성 및 만족도, 강의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3.1 강의평가 응답성향

강의평가 응답성향은 학생들이 강의평가 문항에 답하

는 방식을 의미하고 전체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3개 문항은 전체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였고 나머지 두 문항은 임상실습과 관련한 문항으로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만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전체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3개 문항의 내용은 '강의평가 시 부여하는 평균점수대', '강의만족도가 동일할 때 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과목유형(수업유형)', '강의평가 문항에 대한 응답형태'로 구성되었다. 또한 나머지 2개 문항은 '임상실습 강의평가 시 부여하는 평균점수대', '임상실습과목 강의평가 시 초점을 두는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문항은 Jeong[21]의 도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선행 문헌에 [5,12,22] 근거해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한 후, 교학과 교수 2인 및 간호학 교수 2인에게 의뢰하였고, 간호학과 학생 45명에게 사전조사를 시행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중복되는 내용들을 확인한 후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 2.3.2 강의평가 응답건전성 및 만족도

강의평가 응답건전성은 강의평가 문항에 응답할 때 지니는 정상적이고 올바른 태도를 의미하며, Jeong[21]이 Kim 등[14]의 연구를 근거로 제작하여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로 자율성 4개 문항, 숙고성 5개 문항, 객관성 6개 문항, 기여성 7개 문항으로 4개의 하위요인, 총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성은 강의평가를 수행할 때 강제성을 덜 인식하는 정도, 숙고성은 강의평가를 수행할 때 평가문항을 신중하게 읽고 충분히 생각하는 정도, 기여성은 강의평가를 수행할 때 평가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가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건전성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Jeong[21]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자율성은 Cronbach's  $\alpha = .858$ , 숙고성은 Cronbach's  $\alpha = .942$ , 객관성은 Cronbach's  $\alpha = .857$ , 기여성은 Cronbach's  $\alpha = .954$ 이었으며, 응답건전성 전체 신뢰도는 표기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응답건전성 전체는 Cronbach's  $\alpha = .941$ , 하부요인 중 자율성은 Cronbach's  $\alpha = .775$ , 숙고성은 Cronbach's  $\alpha = .902$ , 객관성은 Cronbach's  $\alpha = .829$ , 기여성은 Cronbach's  $\alpha = .935$ 이었다. 만족도는 Jeong[21]가 Cho와 Kim[7]의 설문을 바탕으로 제작한 설문을 사용하였으며, Jeong[21]의 논문에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86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86$ 이었다.

### 2.3.3 강의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강의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구는 Jeong[21]의 연구에서 학생들이 강의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서술형 의견을 수합하여 질적분석 단계를 기반으로 도출한 문항 중 본 연구자가 연구대상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하여 교육학 교수 2인에게 의뢰하였고, 간호학과 학생 45명에게 사전조사를 시행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중복되는 내용들을 확인한 후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Chonbach's  $\alpha = .711$ 이었다.

### 2.4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은 2018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 연구방법과 절차, 주의사

항 등에 대해 미리 설명을 한 뒤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 서면 동의서를 작성한 후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당일에 수거하였고 설문지 작성에는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총 433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고 그 중 응답이 불성실한 5부를 제외한 428부(98.8%)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강의평가에 대한 응답성향, 응답건전성과 만족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답건전성과 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t-test와 ANOVA를 시행한 후 Scheffé test로 사후 검정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Response Propensity of Subjects

(N=428)

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Male	45 (10.5)
	Female	383 (89.5)
Grade	1	100 (23.4)
	2	120 (28.0)
	3	105 (24.5)
	4	103 (24.1)
Average grade	< 3.0	25 (5.8)
	3.0 ~ < 3.5	168 (39.3)
	3.5 ~ < 4.0	188 (43.9)
	4.0 ≤	47 (10.9)
Participation in class	Not good	21 (6.7)
	Usually	155 (36.2)
	Good	213 (49.8)
	Very good	39 (9.1)
The average score given in the course evaluation	< 3.5	21 (4.9)
	3.5 ~ < 4.0	103 (24.1)
	4.0 ~ < 4.5	177 (41.4)
	4.5 ≤	127 (29.7)
The average score given when evaluating courses in clinical practice courses (Grade 3, 4 / N=208)	< 3.5	12 (5.8)
	3.5 ~ < 4.0	94 (45.1)
	4.0 ~ < 4.5	87 (41.8)
	4.5 ≤	15 (7.2)
Focus on the evaluating courses in clinical practice courses (Grade 3, 4 / N=208)	Professor in charge of courses	45 (21.5)
	Field leader in clinical practice	19 (9.3)
	Professor in charge of courses and field leader in clinical practice	27 (13.1)
	Professor in charge of courses, field leader in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ractice environment and experience	113 (54.2)
	Others	4 (1.9)
Type of courses that gives a higher score when the course satisfaction is the same	Theory	102 (23.8)
	Practice	77 (18.0)
	No difference	249 (58.2)
Response type when evaluating courses	I read the evaluation questions line by line and select them carefully.	255 (59.6)
	I assess the professor / lecturer as a overall first and then answer all the questions similarly.	110 (25.7)
	I read and answer only the first few questions, and the remaining questions are similar to the previous ones.	40 (9.3)
	I choose the answer without thinking.	17 (4.0)
	Others	6 (1.4)

### 3. 연구 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강의평가에 대한 응답 성향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은 학과특성 상 여학생이 383명(89.5%)으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학년은 1학년부터 4학년 까지 각 100명에서 120명 내외로 총 428명이었다. 평균성적은 3.5점 이상 4.0점 미만이 188명(45.9%), 3.0점 이상 3.5점 미만이 168명(39.3%)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수업참여도는 ‘좋은편이다’가 213명(49.8%), ‘보통이다’가 155명(36.2%) 이었다.

강의평가 응답성향에서 강의평가 시 부여하는 평균점수대는 4.0점 이상 4.5점 미만이 177명(41.4%), 4.5점 이상이 127명(29.7%)으로 4.0점 이상이 71.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반면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을 대상으로 외부 실습과목 강의평가 시 매기는 평균점수대를 확인한 결과 3.5점 이상 4.0점 미만이 94명(45.1%), 4.0점 이상 4.5점 미만이 87명(41.8%)으로써, 4.0이상

49.0%로 절반이 되지 않았다. 임상실습과목 강의평가 시 초점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목교수, 임상지도자, 실습환경 및 경험 전체를 고려하여 점수를 매긴다는 의견이 113명(54.2%)로 가장 많았고, 과목교수에 초점을 두고 점수를 매긴다가 45명(21.5%)로 다음 순 이었다.

또한 Table 1과 같이 강의평가 시 강의만족도가 동일할 때 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과목유형(수업유형)은 ‘차이 없음’이 249명(58.2%)로 가장 많았고 이론과목이 102명(23.8%)이었다. 마지막으로 강의평가 문항에 대해 응답형태에서는 ‘강의평가 문항 하나하나를 읽어보고 문항별로 선택한다’가 255명(59.6%)로 가장 많았고, ‘해당 교수/강사를 전체적으로 먼저 평가한 후 모든 문항에 비슷하게 답한다’가 110명(25.7%)를 차지하였다.

#### 3.2 대상자의 응답건전성과 만족도 정도

간호대학생들의 응답건전성의 세부변인은 자율성, 숙고성, 객관성, 기여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세부변인 중 숙고성이 3.9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객관성 3.91점, 자

Table 2. Degrees of Integrity of Responsive and Attitudes Satisfaction of Subject

(N=428)

Variables	Items	Mean±SD	
Integrity of responsive attitudes	Autonomy	I respond by recognizing the necessity of course evaluation.	3.64±.82
		I respond by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course evaluation.	3.65±.79
		I do a course evaluation without the purpose of confirming grades.	3.69±.92
		I respond to the assessment of the course without external influences or pressure.	4.06±.80
		Sub total	3.78±.64
	Consideration	I read and respond to the course evaluation questions to the end.	3.94±.85
		I respond sincerely to the course evaluation questions.	3.91±.81
		I respond to the course evaluation questions by recalling the lecture situation.	4.05±.80
		I understand and respond to the meaning of the course evaluation question correctly.	3.94±.74
		I carefully read and respond to course evaluation questions.	3.86±.79
	Sub total	3.94±.68	
	Objectivity	I respond without being conscious of the impact on me due to the result of the response.	3.78±.91
		I respond without being conscious of grades.	3.83±.86
		I respond regardless of mood or situation.	3.91±.73
		I respond regardless of personal faculty preferences.	3.72±.81
		I answer objectively regardless of the professor status (full-time professor, lecturer).	4.11±.75
		I answer objectively regardless of courses characteristics (major, liberal arts etc.).	4.12±.73
		Sub total	3.91±.59
	Contribution possibility	I answer that I think it can be an important data.	3.70±.91
		I regard my opinion as a way to suggest and answer the course evaluation.	3.72±.93
		I answer the evaluation of the course by considering that I can help improve my university's class.	3.68±.94
		I answer the evaluation of the course by assuming that the professor's lecture will be improved.	3.64±.99
		I answer that the evaluation of the course is helpful to the professor.	3.69±.94
		I answer that the evaluation of the course helps to improve the quality of our university.	3.63±.95
		I answer that the evaluation of the course helps to guarantee the right to study.	3.61±.92
	Sub total	3.67±.80	
	Satisfaction	I am satisfied with the number of course evaluations (twice a semester).	3.54±.92
I am satisfied with the content of the question presented in the course evaluation.		3.51±.85	
I am satisfied with the number of items presented in the course evaluation.		3.54±.81	
I am satisfied with the way the course evaluation is conducted before reading the grades.		3.18±1.09	
Sub total		3.44±.72	

율성 3.78점, 기여성 3.67점 순이었다. 특히 숙고성에서 ‘수강했던 강의상황을 떠올리며 강의평가 문항에 응답한다’가 4.05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강의평가 문항을 끝까지 꼼꼼하게 읽고,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응답하고자 애쓴다’는 세 문항들이 공통적으로 3.94점이었다. 자율성에서 ‘외부의 영향이나 압력 없이 강의평가에 응답한다’가 4.06점으로 두드러지게 높았고, 강의평가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3.65점대로 다른 문항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었지만 5점 척도에서 중간이상의 점수이었다.

객관성은 ‘과목 특성(전공, 교양, 교직 등)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응답한다’가 4.12점, ‘교수 신분(전임교수, 강사)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응답한다’가 4.12점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여가능성은 ‘나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며 응답한다’가 3.72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요한 자

료가 될 수 있다고 여기며 응답한다’가 3.70점으로 높았으나 기여가능성이 응답건전성 전체요인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그 중 ‘해당 교수님의 강의를 개선될 것이라고 여기며 응답한다’가 3.64점, ‘우리 대학의 수업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여기며 응답한다’가 3.68점으로 낮은편으로 강의평가를 통한 강의의 개선결과에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2와 같이 만족도는 ‘강의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항 수에 만족한다’ 문항이 3.54점, ‘강의평가 횟수(한 학기 2회)’에 만족한다.’ 문항이 3.54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만족도 전체 점수가 3.44점으로 응답건전성 하부요인들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3. Differences in Integrity of Responsive Attitudes and Satisfaction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428)

Variables	Items	Integrity of responsive attitudes								Satisfaction	
		Autonomy		Consideration		Objectivity		Contribution possibility		Mean±SD	t/F (Scheffé)
		Mean±SD	t/F (Scheffé)	Mean±SD	t/F (Scheffé)	Mean±SD	t/F (Scheffé)	Mean±SD	t/F (Scheffé)		
Gender	Male	3.89±0.71	.41	4.11±.77	3.14	3.99±.70	3.91*	3.89±.91	5.65*	3.70±.81	.96
	Female	3.74±0.63		3.92±.66		3.90±.91		3.64±.78		3.41±.70	
Grade	1 <sup>a</sup>	3.56±0.63	6.21*** (b, c>a)	3.78±.77	4.51** (b>a)	3.88±.57	2.08	3.36±.84	9.03*** (b, c>a)	3.34±.72	6.02* (b>a,d)
	2 <sup>b</sup>	3.92±0.64		4.10±.62		4.01±.60		3.88±.74		3.64±.68	
	3 <sup>c</sup>	3.81±0.67		3.98±.67		3.91±.61		3.77±.74		3.48±.71	
	4 <sup>d</sup>	3.71±0.67		3.88±.62		3.82±.57		3.60±.77		3.17±.72	
Average grade	<3.0	3.60±0.75	2.41	3.90±.77	2.53	3.95±.62	1.77	3.77±.89	.83	3.15±.88	1.91
	3.0~<3.5	3.70±0.63		3.86±.68		3.86±.60		3.60±.79		3.41±.71	
	3.5~<4.0	3.79±0.64		3.97±.65		3.91±.59		3.69±.77		3.50±.68	
	4.0≤	3.94±0.62		3.15±.71		4.07±.51		3.76±.85		3.45±.78	
Participation in class	Not good <sup>a</sup>	3.63±0.76	3.10*	3.70±.77	7.95*** (d>ab, c>b)	3.86±.64	1.76	3.78±.77	2.41	3.35±.91	.50
	Usually <sup>b</sup>	3.65±0.63		3.77±.74		3.83±.57		3.53±.79		3.40±.72	
	Good <sup>c</sup>	3.81±0.62		4.05±.58		3.96±.59		3.73±.79		3.48±.72	
	Very good <sup>d</sup>	3.93±0.70		4.19±.70		3.98±.64		3.80±.82		3.42±.62	

\*p<.05, \*\*p<.01, \*\*\*p<.001

Table 4. Problems and Improvement of Evaluation of Course Recognized by Subject (N=428)

Items	Mean	SD
I think that professors should not comment (disadvantage) on students' course evaluation results.	4.23	.79
I hope that the professors will accept the results of the course evaluation and reflect them in the class.	4.14	.80
I think that the results of the course should be reflected in the reappointment and achievement of professors.	3.88	.85
I think that students' opinions should be reflected in the course evaluation items.	3.83	.79
I think that the results of the course evaluation of the professors should be disclosed.	3.65	.95
I consider the evaluation of the course to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student.	3.45	.91

###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답건전성과 만족도의 차이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답건전성과 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응답건전성 중 자율성에 차이가 있는 변수는 학년( $F=6.21, p=.000$ ), 수업참여도( $F=3.10, p=.027$ )이었으며, 사후분석결과 2, 3학년이 1학년에 비해 자율성이 높았다.

Table 3과 같이 숙고성에 차이가 있는 변수는 학년( $F=4.51, p=.004$ ), 수업참여도( $F=7.95, p=.000$ )이었다. 사후분석 결과, 2학년이 1학년보다 숙고성이 높았고, 수업참여도가 좋은 학생들이 좋지 않거나 보통인 학생에 비해 숙고성이 높았다. 객관성에 차이가 있는 변수는 성별( $F=3.91, p=.049$ )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객관성이 더 높았고, 기여가능성은 성별( $F=5.65, p=.018$ ), 학년( $F=9.03, p=.000$ )이 차이를 보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2학년과 3학년이 1학년 보다 강의평가 응답결과가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가 더 높았지만, 4학년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변수는 학년( $F=6.02, p=.049$ )이며 2학년이 1, 4학년 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 3.4 대상자가 인식하는 강의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강의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문항에서는 Table 4와 같이 '강의평가결과에 대해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언급(불이익)하지 말아야 한다'가 4.23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수들이 강의평가 결과를 수용하여 이후 수업에 반영하였으면 좋겠다'가 4.14점으로 높았다. 또한 '강의평가는 학생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는 문항이 3.45점으로 가장 점수가 낮았다.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강의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 및 인식을 파악하고자 시행되었으나, 강의평가와 관련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와 같이 구체적으로 시행된 직접적인 선행연구가 드문 편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자 한다.

강의평가 응답성향에서 일반적인 강의평가 시 부여하는 평균 점수대는 4.0점 이상이 71.1%로 다수 응답하였으나, 외부 임상실습 과목 강의평가 시 부여하는 평균 점수대는 4.0점 이상이 49.0%로 절반도 되지 않아 차이를

보여주었다. 또한 강의평가 시 강의만족도가 동일할 때 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과목유형(수업유형)은 '차이 없음'이 58.2%로 가장 많았다. 즉 간호대학생들은 강의만족도에 따라 이론과목과 실습과목에 차이를 두지 않고 점수를 매긴다고 답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실제로 임상실습 과목의 강의평가에서 일반적인 과목의 부여하는 점수에 비해 낮게 부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로 미루어 볼 때 간호대학생들이 인지하는 임상실습과목의 만족도가 다른 과목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연구에서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습 강의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문헌이 드물어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Chae 등[6]의 연구에서 임상 및 실험과목에 이론과목 보다 점수를 높게 부여하는 결과로 본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으나 직접적인 비교에는 무리가 있어 추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강의평가 시 가장 초점을 두는 부분은 과목교수 뿐만 아니라 임상실습 지도자와 실습환경 및 경험들도 동시에 고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임상실습 과목은 교내에서 운영되는 과목과는 달리 외부 실습환경과 경험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임상실습 지도자가 학생실습 대부분의 시간을 지도·관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임상실습 과목 강의평가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며, 또한 그 결과는 임상실습 과목의 개선을 위한 피드백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과목교수에만 초점을 두고 평가한다는 비율은 21.5%에 불과하고, 임상실습 지도자 및 실습환경 등까지 고려하여 평가한다는 누적 비율이 78%가 넘는 것으로 드러난바, 대학에서 타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임상실습 과목의 강의평가 결과를 과목교수의 업적 등에 그대로 활용함은 다소 공정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추후 대학에서는 임상실습 과목 강의평가 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임상실습 과목의 특성을 반영한 강의평가 문항의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간호대학생들의 응답건전성에 대한 세부변인 중 숙고성이 3.9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객관성, 자율성, 기여성 순으로 본 연구 대상자들이 충분히 문항을 읽고 신중하게 강의평가를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시행하는 강의평가로 인해 학생들은 강의평가의 문항에 대한 숙고 없

이 무성의하게 일관된 응답을 하는 경향이 높다는 선행 연구[15,23]와 차이를 보였다. 반면 Jeong[21] 및 Ha와 Jung[24]의 연구에서 숙고성이 높았던 것과 일치되는 결과를 보였으며, 특히 Jeong[21]의 연구에서 숙고성의 내용 중 수강했던 강의상황을 떠올리며 강의평가 문항에 응답하는 경우가 가장 높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가급적 강제적인 강의평가 보다는 학생들이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들이 응답건전성 중 숙고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는 점은 그들이 강의평가를 상당히 사려 깊게 시행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평가 항목들에 대한 결과를 비교적 의미 있는 자료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강의평가의 문항을 구성할 때, 과목의 교수자가 일률적인 문항 이외에 각 과목의 특성을 반영한 문항을 부분적으로 포함하여 구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교수자가 시행한 수업과 관련된 문항으로 정확한 피드백을 제고함으로써, 강의평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객관성에서 간호대학생들은 전공, 교양 등의 과목특성이나 전임, 강사 등 교수자 유형에 차별 없이 강의평가 점수를 객관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교수신분이나 직위 등 교수자의 특성이나 전공, 교양 등 과목특성이 평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와[8,25]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로[6,21] 서로 상반된 차이를 보여주었으나, 본 연구결과가 학생들이 실제로 부여한 점수를 근거로 분석하지 않고 학생들의 강의평가 응답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것이므로 추후 실제 부여 점수를 토대로 비교분석 해보는 확대 연구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율성은 외부의 영향이나 압력 없이 강의평가에 응답하는 경우가 두드러지게 높아 학생들이 강제성을 덜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강의평가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3.6점대로 다른 문항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지만 5점 척도에서 중간이상의 점수로, 학생들이 강의평가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인식하면서 강의평가를 수행한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고려해보면, 간호대학생은 단순히 성적확인 목적을 위해 강제적으로 평가에 임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게 강의평가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가치부여가 조금 더 필요함을 시사한다.

기여가능성은 개인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며 응답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으나, 기여가능성이 응답건전성 전체요인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간호대

학생들은 강의평가를 통한 강의의 개선효과에 대해 비교적 큰 기대 없이 강의평가를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족도에서 평가문항 수에 만족하는 경우와 한 학기 2회인 강의평가 횟수에 만족하는 경우가 비교적 높아, 강의평가 형식에는 비교적 만족하지만 강의평가 만족도 전체 점수가 3.44점으로 응답건전성의 다른 하부요인들에 비해 다소 낮은 편으로 강의평가 개선을 통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성적확인 전에 강의평가를 시행하는 방식이 다른 문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점수를 보인 결과를 볼 때, 성적확인과 연동되지 않으면서도 강의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는 강의평가 시스템 개발이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응답건전성과 만족도의 결과를 종합하면 간호대학생들은 본인의 의견을 상당히 사려 깊고 신중하게 피력하며, 가급적 객관적인 태도로 강의평가에 참여하지만, 강의평가를 통한 강의개선에 대해 크게 기대하고 있지 않으며, 강의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가치 진작으로 평가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연구대상의 과반수이상의 학생들이 평가문항을 충분히 읽고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연구결과[18,24] 및 학생들의 불성실한 강의평가의 주요 이유가 강의평가 결과 반영에 대한 신뢰 부족이라는 결과와[7,12,25] 매우 유사하였다. 따라서 교수들이 평가결과를 강의개선에 반영하는 절차를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대안 등을 반영한 평가시스템의 조정을 통해 간호대학생들이 강의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강의평가에 대한 응답건전성과 만족도에서 전반적으로 2학년이 다른 학년들보다 높아 강의평가에 대해 만족하고, 기대와 의미를 부여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강의평가 영향요인에 대한 메타연구[5]에서 전반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강의평가 점수를 높게 매기는 경향을 보인다는 결과와 상반된 결과이다. 하지만,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Jeong[21]의 연구와 비교하면, 2학년에서 응답성향의 전반적 요인들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4학년에서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은 본 연구결과와 다소 일치하였다. 간호학과에서는 2학년이 되면서 기본 간호학 실습 등 전공의 특성을 살리면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전공과목에 본격적으로 접하게 되면서 본인의 전공에 더 깊은 관심과 만족감을 갖게 되는 경향[26]과 실습수업에 본인이 직접 참여가 가능함으로써[3] 강의평



가에도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오히려 고학년으로 진급하면서 강의평가로써 변화되지 않는 교수자를 경험하거나 개선이 어려운 임상실습 과목의 만족도 저하 문제 등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추후 학년별 또는 임상과목의 특성을 반영한 강의평가 인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재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응답건전성에서 성별차이는 대체적으로 남학생들이 강의평가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어, 선행연구[5,22]와 결과가 일치한다. 또한 수업참여도가 좋은 학생들이 좋지 않거나 보통인 학생에 비해 숙고성이 비교적 높아, 수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높은 수업참여도로 이어지고 또한 그 수업에 대한 강의평가까지도 연계되어 강의평가에 신중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의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강의평가결과에 대한 불이익 언급 자체와 강의평가 결과를 수업에 반영하길 원하는 요구가 높았다. 특히 본 연구의 기여가능성 부분에서 평가를 통한 강의개선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가 부족하다는 결과를 재차 확인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강의평가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개선 없는 수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학에서는 강의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피드백 절차를 포함한 교과목 질 관리 시스템 운영하여 학기말에 교수들이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강의평가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적절한 교육 뿐 아니라 교수들 또한 강의평가 결과 언급 자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수요자인 학생중심의 대학환경에서 간호교육의 만족도 향상방안 제고를 위해 강의평가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전반적인 태도 및 인식을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은 강의평가에 비교적 신중하고 올바른 응답태도로 참여함이 확인되었고, 강의평가 결과는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수자는 평가결과를 반영해 수업을 개선하는 과정을 학생들과 공유하여, 학생들이 강의평가 취지와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임상실습과목 등 간호학과 특성을 반영한 강의평가 문항개발 및 평가시스템 수정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드물었던 간호대학생들의 강

의평가 실태를 분석하여 강의평가 개선방향을 제고하였으며, 특히 임상실습 과목의 특성을 반영한 강의평가 문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간호대학생이 실제로 강의평가를 시행한 점수를 근거로 분석하지 않고, 대상자의 주관적인 강의평가에 대한 인식이 근거하여 답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일개 대학의 강의평가 내용 및 형식에 대한 반응의 결과를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강의평가는 강의에 대한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절대적인 평가의 잣대는 될 수 없기에, 강의평가가 강의에 대한 모든 내용을 설명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음을 제시한다.

## REFERENCES

- [1] J. W. Kim. (2019). The effects of quality of education services on student satisfaction, image, commitment and loyal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2), 145-153.  
DOI :10.14400/JDC.2019.17.2.145
- [2] C. H. Ryu. (2001). Development questionnaires for the evaluation of instruction program at university. *Gyeongyeong yeongu, Hongik University*, 26, 339-389.
- [3] E. J. Oh. (2009). How to improve course evaluation?.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1(2), 1-20.
- [4] J. W. Choi & D. K. An. (2016). A study on the data analysis of the written comments in lecture evalu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1), 101-106.  
DOI : 10.14400/JDC.2016.14.11.101
- [5] K. S. Yang. (2014). Meta-research on the influence of course, instructor, and student characteristics in student evaluation of teaching at universitie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6(2), 293-322.  
DOI : 10.17927/tkjems.2014.26.2.293
- [6] S. J. Chae, Y. H. Jung & Y. S. Jung. (2015). Factors that influence student ratings of instruction.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7(1), 19-25.  
DOI : 10.3946/kjme.2015.27.1.19
- [7] M. S. Cho & C. S. Kim.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tisfaction levels of education and clinical practice in the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4(5), 649-658.  
DOI : 10.13065/jksdh.2014.14.05.649
- [8] J. H. Kim. (2009). *The study of how influences in the environment of college education affects students' lecture evaluation: Based on data of Y university.*

-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Daegu.
- [9] M. H. Kim. (2005). Validity and reliability of lecture evaluation. *Asian Journal of Education*, 6(3), 1-24.
- [10] S. I. Martin, D. P. Way, N. Verbeck, R. Nagel, J. A. Davis & D. Vandre. (2013). The impact of lecture attendance and other variables on how medical students evaluate faculty in a preclinical program. *Academic Medicine*, 88(7), 972-977. DOI : 10.1097/acm.0b013e318294e99a
- [11] S. C. Yum. (2008). Validating students' ratings of teaching scale and analyzing multilevel model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1(2), 25-52.
- [12] S. H. Im. (2013). Attitude and perception of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on course evaluation. *The Journal of Education Studies*. 50(1), 129-140.
- [13] S. H. Ahn & S. J. Lee. (2017). Investigation on methods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education satisfaction surveys : Focused on the S university cas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2), 71-77. DOI : 10.14400/JDC.2017.15.12.71
- [14] M. L. Kim, M. S. Kang & M. H. Kim. (2013). The scale development for integrity of responsive attitudes in students' ratings of instruction.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19(4), 765-784.
- [15] I. W. Park. (2012). A study on effects of student ratings of their learning on consistent responses in student ratings of college teaching.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4(1), 257-281.
- [16] M. J. Suh et al. (2003). Nursing faculty competence and nursing faculty's attitude for lecture evaluati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9(2), 320-328.
- [17]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8). *Purpose of nursing education certification evaluation project*. KABONE [Online]. <http://www.kabone.or.kr/kabon01/index02.php>
- [18] J. A. Kim, A. K. Lee, M. K. Joo, A. S. Jung, E. J. Jung & J. S. Kim. (2004). Survey on the standards set by the students for the evaluation of instruction for college students of nursing. *Kyungbok University Gyeongbognonchong*, 8, 415-434.
- [19] F. Faul, E. Erdfelder, A. G. Lang & A. Buchner. (2007).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2), 175-191.
- [20] F. Faul, E. Erdfelder & A. G. Lang. (2009).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4), 1149-1160.
- [21] H. H. Jeong. (2016). A study on students awareness of course evaluation: focusing on integrity of responsive attitudes and satisfaction.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8(3), 443-470. DOI : 10.17927/tkjems.2016.28.3.443
- [22] C. H. Ryu & J. H. Lee. (2005). A study on instructor factors associated with the student evaluation of teaching at universities. *Korea Business Review*, 9(1), 249-279.
- [23] K. S. Han, S. H. Choi & J. C. Park. (2011). Problems in mandatory course evaluations.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18(1), 35-45. DOI : 10.5351/CKSS.2011.18.1.035
- [24] O. S. Ha & M. H. Jung. (2014).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 student evaluation tool through the analysis of response of student evaluation -focus on 'D' university student evaluation case.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2(3), 273-294.
- [25] S. Y. Shin & J. H. Kwon. (2016).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reliability of the course evaluation: Focused on the management of course evaluation system. *The Institute of Humanities at Soonchunhyang University*, 35(4), 115-145.
- [26] M. R. Song, E. M. Kim & S. J. Yu. (2012). Analysis on the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basic nursing skill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6), 390-401.

## 김 은 아(Eun-A Kim)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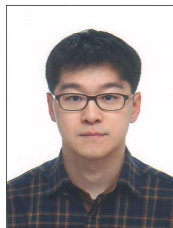


- 2011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1년 3월 : 전남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5년 3월 ~ 현재 : 동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간호교육, 기초간호, 지역사회간호

· E-Mail : eakim@dsu.ac.kr

## 우 상 준(Sang-Jun Woo)

[연구원]



- 2008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5년 8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동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학, 의료경영

· E-Mail : woosj@dsu.ac.kr